

# 서울가는 대중교통 절실... 택지관통 도로, 송전탑 등 '숙제'

## 3기 신도시를 가다

### 안산 장상지구

서울 영등포역서 버스 1시간 거리 반경 1km내 철도역 없어 철도 필요 신안산선 개통엔 여의도까지 25분

“4호선 중앙역 아파트값 소폭 상승 3기 신도시 호재 체감은 적은 편”



지난 20일 방문한 경기도 안산시 장상지구 전경. 비닐하우스, 농지, 송전탑이 들어서 있다.



경기도 안산종합버스터미널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 /정연우 기자

“광명시에 있는 집까지 자가용을 이용한다. 장상지구를 비롯해 이 일대는 지하철도 없는 데다 서울 가는 버스 노선이 적어 출·퇴근 시간마다 버스 안이 승객들로 붐빈다.”

경기도 안산시 수암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오후 6시가 되자 안산~서울·광명·시흥 노선 만원버스가 오고 가는 것을 실제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 입장에서 현재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이 유일한 희망이다.

◆**교통망 부족, 신안산선 2024년 개통**  
지난 20일 방문한 안산 장상지구는 다른 3기 신도시 주요 지역에 비해 서울 접근성이 떨어졌다. 이곳에 가기 위해 영등포역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을 이동했다.

장상지구는 반경 1km내 철도역이 없어 훗날 신도시 입주자를 포함한 교통 수요를 감당하려면 철도 교통망이 반드시 필요해 보였다.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4호선 중앙역이 있지만 서울로 가려면 북쪽으로 약 8km 떨어진 지하철 1호선·KTX 광명역으로 가는 게 더 빠르다.

다행스럽게도 교통망은 신안산선 신설이 계획됐다. 신안산선은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노선은 안산·시흥~여의도 44.7km를 잇는다. 정거장은 15곳이 새로 설치된다. 개통되면 여의도까지 가는 데 기존 100분에서 25분으로 줄어든다.

장상지구는 서해안고속도로, 국도42호, 영동고속도로 등으로 3선이 둘러싸였다. 이 중 영동고속도로는 택지를 관

통하고 있었다. 도로 근처로 가자 차들이 오고 가는 소리가 너무 커서 귀를 막아야 했다. 미리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신도시 입주 주민이 소음 문제에 직면할 것 처럼 보였다.

택지 내 송전탑이 다수 세워져 있다는 점 또한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해결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도시 개발 중 지중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지구단위계획 내년 승인 신청, 1만 4400가구**

안산 장상지구는 현재 크고 작은 공장, 폐기물 처리장, 고물상, 비닐하우스, 농지 등이 자리하고 있다. 작은 식당들도 눈에 띄었다. 이곳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됐다. 안산시는 11월6일 장상지구와 관련한 종합적인 개발 방향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오는 2021년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4호선 중앙역 일대 아파트값이 조금 올랐지만 아직 3기 신도시 호재에 대한 체감은 적은 편”이라고 전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중앙역 근처에 있는 안산센트럴푸르지오는 전용면적 84㎡가 7억7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 6월 7억2000만원에 팔렸다.

전세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품귀현상을 반영하듯 1건에 불과했다. 현재 84㎡가 5억1000만원에 물건이 있다. 지

난 8월 보증금 3억5000만원 9월 4억 5000만원에 계약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초지역메이저타운푸르지오는 전용면적 59㎡가 6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 6월 5억8000만원에 팔린 후 호가 2000만원이 올랐다. 전세는 같은 면적형이 3억5000만원에 물건이 있다. 지난 7월 보증금 3억원, 8월 3억 1000만원에 계약된 후 호가 4000만원이 올랐다.

장상지구 개발되면 수암동 시가지와 중앙역, 초지역 일대가 연결돼 도시의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가까운 곳에는 시흥시 목감택지개발예정지구도 있어 도시 간 연계도 기대된다.

한편 안산 장상지구는 장상·장하·수암·부곡·양상동 일원 221만3000㎡ 규모로 1만44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시행자는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산도시공사(AUC)다. 사전청약은 오는 2021년 하반기 시작될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장상지구는 신안산선 호재와 함께 광명과 여의도가 연결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영동고속도로로 택지모양이 분절됐지만 인근 시흥 목감택지도 연계해 있고 장기적으로 교통망도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발전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수능 D-11’ 만점기원 기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D-11일인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불자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다. /뉴스

## 내년 공인회계사 1100명 이상 뽑는다

금융위, 등록회계사 2만1758명 2022년 이후 선발인원 감소 시사

〈공인회계사 선발추이〉

/자료=금융위원회

연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최소선발 예정인원	750	800					850						1000	1100
실제선발 인원	830	1040	936	953	961	998	904	886	917	909	915	904	1009	1110

2021년도 공인회계사(CPA) 시험 선발인원이 1100명 이상으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100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850명을 유지하다가 외부감사 인력수요 등을 반영해 올해 150명 늘어났다.

등록회계사는 2005년 8485명에서 올

해 2만1758명으로 늘었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해 공인회계사 시험 선발인원수를 발표하며 2022년 이후에는 감소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2022년부터 시험적령기인 25~29세 인구가 순감소하고, 대학입학자 수 추이를 고려하면 시험응시자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감사 품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고려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황별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돌방상황에 대처해 시험의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험일정 및 과목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27일 ‘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2.5단계 수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1면 ‘코로나 3차유행...’서 계속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8일 부터 세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18일 이후 5일 연속 300명대를 넘어섰다.

특히 서울 119명, 경기 74명 등 수도권에서 219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 확진자가 3일 연속 2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8월 말 이후 처음이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앞서 경험한 2.5단계와 비슷한 수준의 제한이 이뤄진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의 경우 9시에 문을 닫으며,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은 물론,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또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랜섬웨어 공격’ 이랜드, 점포 절반 휴점

NC·뉴코아 점포 50곳 중 23곳 차질

이랜드그룹이 22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NC백화점 등 오프라인 점포의 절반 정도가 휴점을 하거나 부분 영업을 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오늘 새벽 사내 네트워크 시스템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며 “이를 인지한 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내 네트워크 시스템의 일부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랜섬웨어는 사용자 컴퓨터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다.

이랜드그룹이 차단한 시스템은 일부 점포의 포스(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단말기 등과 연동돼 있어 NC백화점과 뉴코아 아울렛의 점포 50여곳 중 23곳의 영업에 차질이 생겼다.

뉴코아 아울렛 광명점은 개점을 하지 않았다가 현재 일부 매장만 운영을 시작했다. 강서점도 일부 패션 매장은 이용할 수 있지만, 식품 전문매장 김스클럽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각 점포에서 직원들이 영업 중단과 관련한 안내를



22일 오후 서울 뉴코아 아울렛 강남점 2,3층에 붙은 전산장애로 인한 조기 영업종료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하고 있다”며 “복구 작업을 통해 최대한 빨리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랜드그룹은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